

# 효성, 나노기술 적용 원사 개발

## <마이판 나노 매직실버> 3월 첫 선 ... 향균 및 원적외선 방사 기능

효성이 국내 처음으로 나노기술을 적용한 의류용 원사 <마이판 나노 매직실버(Mipan Nano-Magic Silver)>를 개발했다고 2월25일 발표했다.

<마이판 나노 매직실버>는 섬유에 미세한 천연 은을 혼합함으로써 영구적인 향균성이 있고 각종 질병이나 악취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며, 원적외선 처리로 혈액 순환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.



효성은 최근 나노 은 기술을 적용한 원사 개발에 성공해 3월 선보일 예정이다.

력할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 <조인경 기자>

특히, 단순한 섬유 표면처리가 아니라 은이 원료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폴리머에 배합됐기 때문에 잦은 세탁에도 은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며 염색 등 후가공성도 뛰어나다.

효성은 3월에 열리는 <Preview In Daegu(PID)> 전시회에서 <마이판 나노 매직실버>를 선보일 예정이며, 2004년 하반기에는 나노 매직실버를 적용한 속옷이나 스포츠 레저웨어 등 완제품으로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
효성 관계자는 “전세계 의류용 나노 섬유시장 규모가 26억달러에 달하고 연평균 10% 이상 성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나노기술을 적용한 고부가가치 원사개발 및 시장창출에 주

<Chemical Journal 2004/02/26>